

탁월한 령도, 위민헌신이 안아온 눈부신 전변

공화국의 력사적행로가 그리하지만 특히 지난 수년간은 류테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었다.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앞길을 가로막고 굴복시키려는 적대세력의 발악적 책동은 국도에 이르렀고 세계적인 전염병위기에 큰물과 태풍을 비롯하여 혹심한 자연재해도 빈번하여 닥쳐들었다. 이런 불리한 속에서도 공화국은 조금도 주저않고 역경을 맞받아 내달리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왔다.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승리의 한길로만 내달려온 공화국의 진군의 앞장에는 천출명장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시었다. 그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국력은 최대로 강화되었다.

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었으며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사랑의 조치를 다 취해주셨다. 그 사랑, 그 은정에 의해 인민의 행복의 웃음은 더욱 높아가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는 인민들의 궁지와 자부심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의 그 어디를 가보나, 지방의 두메산골이나 저 멀리 섬마을을 찾아가보나 령도자를 그리며 따르는 인민의 진심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령도자와 인민의 마음도 하나, 발걸음도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전진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오늘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화국의 최강의 군력, 전략적 지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군력강화를 위한 력사적인 대회합에서, 때로는 포연선 전투훈련장들과 전초기에서 총진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훈에 대하여 새겨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부대, 구분에 불의의 정황을 주어 실천준비상태를 료해하시며 인민들이 군무생활의 하루하루를 훈련으로

이어가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신 그이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으시고 지난 기간 위험천만한 시험사격장에로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나가시고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화력진지에도 나아가시었다. 또 국방과학자들에게 새 기술창조의 열쇠도 안겨주시고 한밤이 지새도록 새 무기조립도 지도 해주시며 군력강화를 위해 수많은 낮과 밤을 바치시었다. 그의 희생적이고도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너무도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래운 주재병기들이 이 땅위에 태어날 수 있었고 조선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동력이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의 강국이라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론이다.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웃음을 안겨주시며 온넋을 바치신 경애하는 그의 령도의 손길 아래 이 땅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전변의 력사가 펼쳐졌

고 얼마나 많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인민의 심장을 울려주었는가. 폭압에 드시었다가도 인민들 생각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구상을 펼치고 조국방어를 주름잡는 야전차의 속도마저 더딘것 같아 만리장공의 하늘길에도 오르시분. 인민의 웃음소리가 울려져게 될 새 살림집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로고를 바치시분. 인민이 당한 불행과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위험천만한 현지지도의 길에도 오르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는 친어머니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어찌 이뿐이라. 모든 로선과 정책작업을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상고충과 애로를 남먼저 풀어주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위민헌신의 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눈오는 날, 비오는 날, 삼

복의 무더위, 한겨울의 혹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이어가시는 그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줄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들이 이 땅위에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졌다. 사람들은 지금도 지난 한해를 잊지 못한다. 련이온 자연재해가 이 땅을 휩쓴 2020년을. 그때 세상사람들은 공화국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격정과 불안의 시선을 조선에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피해지역 들마다에 몇달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주민들이 한낱한시에 황홀한 새집을 받아안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져 온 나라를 격정과 기쁨으로 설레게 했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믿음으로 겹겹이 막아선 엄중한 도전과 장애를 가셔주시고도 모두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민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지난해의 위대한 승리를 몸소 마련해주시고도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라고,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성실한 탐과 노력으로 나라를 만드는 고마운 애

를 밝히주시고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신다. 최근년간 공화국이 걸어온 격동적인 화풍들을 되새겨보며 지금 이 땅의 인민들은 누구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사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그의 령도요라 하고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이냐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져다주고있다. 위인을 모셔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도 빛나고 미래는 더욱 창창하다. 강영진

하나 조선에서는 피해지역 들마다에 몇달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주민들이 한낱한시에 황홀한 새집을 받아안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져 온 나라를 격정과 기쁨으로 설레게 했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믿음으로 겹겹이 막아선 엄중한 도전과 장애를 가셔주시고도 모두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민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지난해의 위대한 승리를 몸소 마련해주시고도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라고,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성실한 탐과 노력으로 나라를 만드는 고마운 애

이 노레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고양-담촌철길



묘향산의료기공장



려명거리의 새집들이(2017년)

부모보다 먼저 찾아가신 사연

은파군 대청리라고 하면 그 지명과 더불어 떠오르는 눈물겨운 화곡이 있다. 휴양으로 질척한 길 아닌 길에 차바퀴는 말갈것도 없고 차체에 온통 진흙물이 튀어오르며 서있는 야전차. 그 차문을 여신채로 자신개로 달려오는 대청리농장원들을 정겨운 미소속에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그 화곡은 큰물피해를 입은 대청리에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찾아오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귀로에 오르시던 때에 있었던 사연을 전해주고있다. 물이 채 찌지도 않은 땅, 언제 도 돌밭적인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친부모들보다 먼저 찾아오시었다. 한지에 나앉았을 인민들을 그려보시며 얼마나 급하게 차를 몰고 오시였는가를 차체에 묻은 흙탕물이 다 전하여주고있다. 어디에나 자연의 광란이 휩쓴 흔적이 력력하고 사방이 물웅덩이와 진흙탕뿐이어서 한발자욱 내디디기도 힘든 그곳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일먼저 오실 줄은 누구도 상상 못했다. 한점의 마른 땅도 없는 험하기 그지없는 마을에 찾아오신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인민들이 몸둘바를 몰라하며 감격의 눈물을 지을 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을 한번 가보시고, 아무리 길이 험하여도 피해상황이 어떤지 직접 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발목까지 잠기는 감랑길을 주저없이 걸으셨다. 수재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땀이 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귀로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의 야전차가 그만 길옆의 논으로 미끄러져들어가게 되었다. 차는 심하게 기울어지고 거들 공회전 하는 차바퀴로 하여 차체는 진창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10여명의 농장원들이 그의 야전차로 어부러지듯 달려와 한참이나 신고해

사람들은 흔히 밤하늘을 련상할 때면 제일먼저 북두칠성을 떠올리곤 한다.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는 별은 칠칠야밤 속에서도 북쪽방향을 가리켜 준다. 그러나 이 북두칠성이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단순한 자연의 별이 아닌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별, 령도자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자 하는 신념의 별로 되고있다. 그러한 인민의 마음을 담아 공화국에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가 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장군님은 어데 계실까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 일까

몇해전에 있는 일이다. 당시 압록강유역에는 련년에 보기 드문 큰물이 쏟아져 내려 엄청난 피해를 몰아왔다. 큰물은 압록강안의 섬에서 살고있는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했고 압록강계방도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큰물 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며 동시에 압록강계방도 억년피해를 모르게 복구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이 인민군 부대에 하달되었다. 경애하는 그의 명령을 받고 날개라도 돌진듯 번개처럼 달려온 인민군장병들은 사뭇치른 큰물과 폭길같은 폭우속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고 불사신처럼 피해복구공사에 달려붙었다. 인민들은 군인들의 불굴의 기상을 보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과감해주시던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현지주민들은 그가 누구든 색다른 그 무엇이 생기면 군인들을 생각하고 군인들에도 그들대로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행도 주지 않기 위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은파군 대청리의 새집들이(2020년)



본사기자 황금숙

《낮에도 뜨는 북두칠성》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선물식물 회향

김성숙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가극혁명 불의 불이 타오르던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이다. 혁명가극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던 나이런 간호원처녀 강연옥이 크나큰 기대를 안고 찾아가던 태백산 병동에서 령 빛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눈물짓다가 절절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창작된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전인민적인 송가로 애창되고있다. 작곡의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남았을 때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르면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대 민족 회의 소집을 위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대화되는 대결》을 떠돌면서 민족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음모에 매달리었다.

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우리 민족의 통일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 《영구분열의 위기를 막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 《자주적평화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그것을 승리로 종착시킬수 있는 위대한 강령》이라고 하면서 《동강남 조선국을 잇기 위하여 5대강령실현에 힘쓰자》고 주장해나섰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5대방침에 밝혀진 대민족회의 소집을 통일문제해결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1973년 7월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에서는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신중히 토의하고 통일의 일 단계를 담담히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제의하면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974년 8월 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1차확대회의에서는 대민족회의의 토의하며 특히 대민족회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물론 해외의 모든 동포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대표들도 참가하는 광범위한 전민족대회로 되어야 할것이라는것을 밝혔다.

조국통일5대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소집하는것이였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것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실현하며는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여러분들은 녀자가 어떻게 국가사업의 한 부분을 맡아 지도하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 동무는 제대로 잘하고있습니다. 남자 못지 않습니다.》

부렬주의세력에게 철추를 내린 조국통일5대방침

말하는 단순한 림기용인이 아니라 만사를 꿰뚫어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정치사의 일대 기적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전쟁의 포화가 멎고 정전이 된 때로부터 두달이 지난 1953년 9월이였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수령님을 서로 앞을 다투며 초창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이으시었다. 《여러분들은 녀자가 어떻게 국가사업의 한 부분을 맡아 지도하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 동무는 제대로 잘하고있습니다. 남자 못지 않습니다.》

조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인민들은 모두 공화국의 첫 너성상을 기우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처럼 열렬한 박수를 보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희망은 점점 실망과 허무감으로 뒤바뀌었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탄압이 날을

따라 강화되었고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은 저지마다 자기를 《혁명가》, 《활동가》로 내세우면서 영도권쟁탈을 위한 분파싸움을 그에 심취되어 애국열로 가슴을 불태웠으며 학교졸업후에는 독립에 뜻을 품고 조선공산당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희망은 점점 실망과 허무감으로 뒤바뀌었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탄압이 날을

사람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선생은 홍명희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과 함께 신간회에도 참여하였다.

그 후 선생은 광주학생사건과 조선공산당재건사건 등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너성상 (1)



허정숙선생과 그의 아버지 허헌선생

범여권정치세력이 《국회》에서

최근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정치세력이 2018년 9월 보우야당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하였던 4.27관문점선언의 《국회》비준문제를 다시 들고나오고있다

행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 북남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 오늘 함께 한 180명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리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6월 중으로 처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6월 25일 《메일경제》가 전하였다.

이들은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자!》, 《다가오는 8.15, 주권과 평화, 통일을 위한 집중행동으로 남북관계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자!》고 호소하였다.

《8.15대회추진위원회》는 앞으로의 투쟁계획으로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북남선언리행과 남조선미합동군사연습중단, 일본의 헌법개정과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저지 등을 요구하여 《1만 단체선언》, 《10만 온라인국민행동》을 전개해나가며 특히 8.15를 계기로 《한반도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집중행동》과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1천 인내료자회의》를 주요 도시를, 남조선전역에서 해외동포단체들은 물론 국제평화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밑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남조선의 《민플러스》, 《뉴스1》 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8.15대회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8.15대회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남조선의 《민플러스》, 《뉴스1》 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8.15대회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남조선의 《민플러스》, 《뉴스1》 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8.15대회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남조선의 《민플러스》, 《뉴스1》 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8.15대회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론

서훈짜리 광대놀음

남조선국방부가 6.25를 계기로 《전쟁기념사》와 함께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과 《전투체험관》개관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등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적극 고취하였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당국주최하에 《6.25전쟁 71주년 기념식》이라는 것도 벌여졌다.

이 모든것은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체와 수치스러운 패전상을 가리우기 위한 서훈짜리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71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직후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 《70여년전 선배들의 호국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부여된 임무에 정성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대결의식을 고취하였지만 놓고보아도 동족에 대한 변함없는 적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남조선에서 이번에 벌어진 광대놀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세와 야합한 저들의 침략전쟁을 《자유수호를 위한 성전》으로, 침략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자들을 《참전용사》로 둔갑시키는 것으로 일관되어왔다.

세월은 흘러 전쟁의 포연은 가서졌지만 가려졌던 그날의 진상들은 복침을 떠들며 헤뭇버치던 침략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오늘도 력력히 새겨주고있다. 산천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승전과 패전의 력사는 그대로 존재하고있는것이다. 과거는 앞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남조선군부가 반세기가 훨씬 지나 71년이 된 오늘까지도 《전쟁기념식》이라는것을 벌이고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 대결의식을 고취하고있지만 이것은 세인의 비난과 조소, 규탄만을 자아낼것이다.

정 필

《변화》와 《혁신》을 떠들어도...

《경륜부족, 공정한 인사문제, 동지 구(변화를 주지 않고 지선적으로 하는 것)서정치가 되려 위험요소로 될수 있

다.》, 《세 지도부가 야권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것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변화》와

《세대교체》를 내걸고 등장한 《국민의 힘》의 세 지도부에 대한 남조선언론, 정치

과연 《경륜》문제일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국민의 힘》의 세 지도부선출에 대해 향후 정치변화를 예견하면서 《경륜》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국민의 힘》이 《혁신》의 간판에 진행된 당직임명과정의 비난을 받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언론 《연합뉴스》는 《국민의 힘》이 새 사무총장으로 광주인민봉기를 외곡선정하는데 열을 올린자를 임명함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분노를 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 힘)의 세 지도부가 호남에서 인정받기 위해 강경보수층이 주장하는 5.18에 대한 음모론과 지역비하, 차별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호기롭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

다》고 까박하면서 《환골탈태하던 (국민의 힘)이 (도로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신호탄은 바로 한기호사무총장 임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한임으로 두말하는것이 (국민의 힘)이 말하는 공정한 인사이고 정의냐, 아니면 겉으로는 광주인민봉기를 끌어안고 속은 여전히 음모론을 믿는 이중성이 (국민의 힘)의 정체성이냐》고 격분을 표시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우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국민의 힘)의 새 대표가 전당대회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파라는

주로 갈등의 중심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이것은 새 당대표가 야권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고 평하였다.

《탈래, 안 탈래?》

《정권교체》를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도 변변한 인물이 없어 고민하는 《국민의 힘》이 눈독을 들이는것이 외부인물들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전 경찰총장, 전 감사원 원장, 전 경제 부총리 등도 있다는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들에게 자기 당에 입당하면 좋은 조건을 갖추어주겠다고 추과를 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7월초에 《대선》을 위한 《선거기획단》을 내오겠다, 8월에는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패스》를 출발시키겠다는 《경선패스》 정치출발론을 내세우고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제1야당으로서서는 당밖 주자들의 지지세를 등에 업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것이다.》고 분석하면서 《국민의 힘》이 경선을 앞당기는것은 당밖의 인물들이 빨리 《경선패스》에 오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평하였다.

번대기가 나비로 변신했다고 해도 종자가 달라지는것이 아닌것처럼 《국민의 힘》이 《변화》, 《혁신》을 떠들어도 결코 달라질수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치권의 인기주의, 민심은 싸늘한 눈길

최근 남조선정계에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바람이 불고있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외신들은 남조선의 《세대교체》바람은 이미 2016년 박근혜탄핵사건의 충격으로 정계에서 《국민의 힘》에 대한 환멸이 고조된데가 《정권》교체이후에도 실업률과 집값상승, 공직자들의 부동산투자사건 등으로 젊은 층의 불만이 더욱 커지면서 생겨난 기성정치체대에 대한 실망과 환멸의 표출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지속되었는지는 아직 가능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다고 한다.

하다면 남조선정계에 부는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라는 바람이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를 구구 떠들어대는

《국민의 힘》을 보기로 하자. 새로 선출된 지도부만 보아도 대표는 젊은 사람이지만 당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등의 요직에는 중진들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보우야권의 《대통합》을 한답시고 《국민의 힘》의 합당문제에서 자기들의 리전만 내리먹이며 구태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고 또 막말과 독단으로 오묘를 펼친 인물을 비롯한 《꼰통보수》인물들, 자기 당의 《들러리》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다 포섭하겠다고 한다.

《능력주의》로 민심을 끌어당기려는것도 마찬가지이다.

4명의 당대변인을 선출하는데 560여명을 끌어들이는 자질을 벌리게 하고 TV와 인터넷으로 실황중계까지 하였더니 치열한 생존경쟁을

《능력주의》로 포장한것이 《국민의 힘》의 《변화》이고 《혁신》인 모양이다.

《국민의 힘》의 《능력주의》에 대해 당밖에서는 능력주의가 공경해보이지만 승자독식사회가 되는것이라며 이것은 《공정》을 가장한 부정의라고 비판하고있으며 당안에서는 대변인선출방식을 두고도 《그동안 급여와 활동비도 없이 각종 청와 토론회에 동원되어온 청년들의 헌신이 능력주의에 가려 사라질까 걱정된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어느 한 정치평론가도 《남조선보수정계에 불길한 장이 펼쳐지고있다.》고 비평하였다고 한다.

남마에 색깔한다고 비난이 될수 없고 색은 늘에서 《변화》와 《혁신》의 장미꽃이 필리 만무하다고 《국민의 힘》이 《변화》, 《혁

신》, 《세대교체》의 기발을 혼들어대지만 《도로새누리당》으로 되고있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이다.

이러의 다른 당들도 비슷한 형편이라고 한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정계에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있지만 그것은 아직 민심의 지향에 따라서지 못하는, 민심의 요구와 배려되고있다는것이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이다.

시대의 지향과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태에 빠져 인기주의로 민심을 기만하려 한다면 그 누구이든, 어떤 정치세력이건간에 언제 가도 인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은 물론 민심의 대하에 거품처럼 밀려나게 될것이라는것을 지금의 남조선정국이 시사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미군의 변조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진행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가 6월 30일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의 주최로 수요시위가 열린 소식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는 《위안부문제는 참혹한 전쟁범죄이며 국가주도로 자행된 조직적인 전시성폭력이다. 일본은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역사외국, 방사능 오염수방류, 도요올림픽개최강행 등 최소한의 랑심도 없이 자신들의 리익을 관철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1500차를 앞두고있는 서울 종로구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의 수요시위를 언급하며 《오는 7월

14일이면 1500차가 되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수요시위는 바뀌처럼 단단하게 련결되어온 여성들의 투쟁이자 련대이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력사의 정의를 위해 우리 여성들은 끝까지 행동해나갈것이다. 끝까지 싸워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끝으로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일본영사관을 향해 《66차 수요시위, 1500차 30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게 승리》라고 여러번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부산수요시위는 2015년 남조선과 일본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위안부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2016년 1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6월 30일로 66차를 맞이한다고 한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남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는데 대해 널리 보도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계속되는 령도도발행위가 대립과 불신을 격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일본이 지난 5월 도요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령토로 표기된 지도를 게시한데 이어 6월초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동영상까지 게시한데 대해 보도하면서 각계층에서 일본의 령이든 독도도발행위가 더이상 참을수가 없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야욕을 제압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한편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쌍방간의 갈등이 더 한층 악화되고있는것도 문제라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최근 남조선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오래간만에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데 대해 전하였다. 언론들은 협의에서는 일본의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피해배상문제, 도요올림픽인터넷 홈페이지의 독도표기문제 등

남조선언론 끊임없는 군내 성범죄행위 비난

남조선에서 지난 5월 뇌중사자 성폭행을 받고 자살한 사건이후에도 군부내의 성범죄사건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군부내에서 성범죄사건이 없어지지 않는것은 물론 가해자들이 응당한 벌을 받지 않는 원인에 대해 언론 《시사저널》은 이렇게 폭로하였다.

《판박이처럼 같았다. 군내내 성범죄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국방부와 군의 안이한 대응은 10년전, 5년전과 변한 것이 없었다. 가해자들의 가해는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 성추행피해회 조직적회유, 압박이 시달라다 사망한 리 아무개 공군중사도 마찬가지였다. 리중사의 성추행피해와 사망이 외부로 알려지자 전까지 군경찰과 공군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었다. 사건진상후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증거확보, 피해자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리중사는 장 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지난 3월 2일 당일밤 상판에게 보고했으나 군경찰은 4월 7일에

야 장중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사이 리중사는 갖은 회유와 압박에 내물렸고 2, 3차가해까지 더해졌다.

군의 총체적부실대응은 군인신분인 군경찰과 군경찰이 모두 하나의 지휘체계에 속해있기에 가능했다. 군사법원법 때문에 군경찰검사는 부대지휘관에게 소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분리된 민간과 달리 군은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사건이 불거지면 지휘관도 인사에 영향을 받게 되어 범죄를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일어날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국방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사건이 군경찰과 군경찰을 뺀 군사법원에 가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항소심까지는 군의 메두리안에 있어 군경찰구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법원선고까지 모두 자체결정하는 구조다.

군사법원 판사는 부대지휘관이 아닌 국방부와 록, 해, 공군본부소속이지만 지휘관이 재판관을 지칭하고 심판관을 임명한다. 지휘관이 심판관을 통해 재판전반에 개

입할 여지를 열어준셈이다.

또 지휘관에게는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을 3분의 1미만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는 확인조치권도 부여된다. 사건축소나 가해처벌에 대한 지휘관의 주관적판단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얼마든지 변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작용이 만연한 군사법체계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꼽혔지만 《전시상황》을 가정한 현행사법체계운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측의 반발에 부딪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피해자가 보고를 망설이는 리유》에 대해서는 《불리》, 《보복우려》, 《비밀보장이 안된다》, 《어차피 문제해결이 안될것》 등의 답변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죽거나 혹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이들의 싸움은 이처럼 기약이 없다.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 피해자보호와 재발방지약속은 여전히 허공을 떠돈다.

본사기자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온 조선팡을 거대한 감옥이로

무단통치시기인 1912년 3월 일제는 《조선감옥령》을 공포하고 수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여 약탈은 시대문감속에 대한 확장공사를 벌일것을 비롯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감옥을 대대적으로 확대해나갔다.

그러하여 1916년에 이르러 감옥수는 본감옥 9개, 분감옥 13개, 감옥출장소 3개로 늘어났다.

일제는 이러한 상설적인 감옥인으로도 부족하여 양철판으로 립시감옥까지 만들어 놓고 예극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감금하였다.

당시 감옥의 실태에 대하여 한 외국인은 이렇게 밝혔다.

《감옥을 아무리 만들어도 당해낼수 없어서 양철판으로 된 감옥까지 내왔으며 1㎡당 6~7명, 정어리를 다져넣는것과 같았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자는지 모르겠다.》

한편 일제는 각종 폭압행들을 랑발하면서 감옥이 모자라게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하였다.

일제는 1910년 12월 《범죄결정령》을 공포하고 191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폭압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죽결처분》의 대상으로 되었다. 당시 일제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죽결처분》은 1911년에 1만 2099건, 1912년에는 2만 1507건이었으며 그후 계속 늘어나 1918년에는 1911년의 6배인 7만 1279건으로 늘어났다.

일제는 이밖에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총화약칙체령》을 비롯한 각종 약법들을 련이어 조작공포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헌병, 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넘어가면서

조선민족에 대한 폭압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이른바 사법제도의 개선이라는 명목에 모든 재판소, 검찰소들에 사상판사, 사상검사제도를 내오고 조선의 반일예극자들에 대한 살인제판을 벌여놓았다.

감옥제도도 개편하였는데 1921년에 9개의 감옥을 형무소로 바꾸고 그것을 계속 늘어갔다.

1927년말 당시 조선에는 16개의 형무소와 10개의 형무부소가 있었다.

당시 형무소의 실태에 대하여 일제자제도 《형무소의 총면적은 5075㎡였는데 1㎡당 2.9명의 수감자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0.4명인데... 그에 비하면 그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고 실토했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비밀결사, 집회들을 엄금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예극자들의 반일투쟁을 탄압할 목적으로 《치안유지법》을 조작하고 시행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일제는 1928년에 《치안유지법》을 보다 악독하게 고친 《신치안유지법》을 조작하였는데 이 약법의 제1조에는 사형까지의 형을 적용한다도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 약법을 휘두르며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예극자들을 체포, 구금, 처형하였다.

일제는 그후 파쇼악법인 《사상범죄보호관찰령》, 《사상범죄방구금령》 등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조작하여 반일사상을 가진 조선사람들에 대한 감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처형하는 치명적인 민행을 감행하였다.

본사기자 한복순

《양분할수록 더욱 오만 방자하게 나오는 일본》

이 의제로 다루어졌다. 남조선측은 일본이 성의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원전오염수처리문제, 일본정부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세계

유산등재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했지만 일본측은 《국제법에 반한다.》며 받아들일수 없다는 오만한 립장을 취하였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문화일보》, 《뉴스1》 등은 다가오는 도

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일본측 대응 등을 근거로 도요올림픽경기대회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남조선당국이 일본을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지만 일본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면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시킨데 이어 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도 각하시켰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그 판결 하나로 관계개선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호언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양분할수록 더욱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일본이다. 랑측원의 갈등과 대립의 끝이 너무 깊어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올해에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공화국의 각지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열의가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다.

질풍같은 기세로 완공의 시각을 앞당기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전력의

살림집건설장에서, 만만한 배신안고 자립적로동강화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 과업을 기어이 넘쳐 수행할 결사의 의지에 넘쳐 있다.

난관이 클수록 더욱 대담하게

《혹독한 난관이 증첩되고 있는 지금 보통의 각오를 가지고서는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난관도 극복되고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속대생산을 극대화하고 탄산가스흡착공정에서 수소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등 생산토대의 정비보강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한 비결에 대해 총남비로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 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뚜렷한 성과를 이룩할 결심밑에 당당한 비로련합기업소 어려운 속에서도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고 한다.

하여 비로련합기업소에서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전력생산단위들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 나아진 목표수행을 위해 백배로 분발해나갔다. 그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고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든든히 갖추어갔다.

모든 난관을 박차고 올해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완수하자! 이것은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불같은 열의이다.

황해체첸련합기업소에서 현존설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선철생산을 다그칠 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전후 공청능력을 과파하며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한 전세대들의 투쟁본래로 오늘의 총진군의 전열에서 내달리고있다.

《난관앞에 주저하면 할수 있는것도 못하게 되고 자력갱생정신으로 맞받아나간다면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철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황해체첸련합기업소 직장장은 말한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무겁게 자각한 상현세

낮과 밤이 따로 없다

여기는 나날이 천지개벽되어가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지금 이 시각도 솟구치고 있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증첩된 난관을 맞받아 기세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투쟁기상을 떨치는 총포성능은 전구로 되고있다.

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막아서는 예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순간도 전진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세멘트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우리와 만난 김철복 경공업성 국장은 《지금 원료, 자재, 자금보다 절실히 필요한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추동하겠다는 각오와 실천력이다.》고 하면서 올해 경공업부문에 내세운 주요지표와 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고 인민들이 실지대로 누릴수 있는 성과를 기어이 이룩할 결의를 과력하였다.

한편의 영화가 새겨주는 시대정신

최근 조선중앙TV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방영되었다. 이 영화가 나온지도 이제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하나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영화는 여전히 만사람의 마음속에 새긴 감동의 파도를 일으켜주고있다. 강태관직장장과 그의 아내 엄씨, 진용산작업반장과 강옥, 강태섭로장과 사육비, 강석과 한송옥...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있었던 최물집업가의 사연 많은 운명사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준 영화의 인물들은 어느 한두명의

를 창조하고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완공을 위해 오늘에 바치는 한시간한시간이 곧 사랑하는 자식들의 더 좋은 레일을 알당하는 길임을 잘 알고있기에 건설자들은 심장으로 이렇게 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현실로 활짝 꽃피울 이 첫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창조의 구슬땀을 바쳐가는데보다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없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이 곧 올해 전투승리의 길,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는 길, 인민에게 건인불발의 투지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낮과 밤이 따로 없다.

농사애 힘을 집중하여

조 선 로 동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앞잡고이를 무조건 점령할 신심높이 농사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서해지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련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북도에서는 여러가지 김장방법을 잘 배합하면서 김매기에서 집단주의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평안남도에서는 포전별, 날자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회주의경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강병이발김매기를 다그치고있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농업을 추켜세우는것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국가대사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농김매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동해지구의 농촌들에서도 김매기실적을 부단히 올리고 있다. 함경북도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김매기를 일정에확대로 내밀고있다. 길주군, 어랑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농률높은 김매기수단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리용률을 높이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다. 함경남도에서 김매기를 긴장하게 다그치고있다. 단천시, 신흥군의 농업근로자들은 김을 한번 더 매면 비료를 한번 더 준것과 같다고 하면서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남포시, 개성시에서도 강병이발김매기에 련하여 농작물비배관리와 함께 당면한 앞구작물수확, 뒤구

농작물수확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헌신하고있다. 두벌농사를 잘 지어야 정보당 알곡수출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평안북도의 일군들은 밭, 보리수확에 련량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농업근로자들이 련일 실적을 올리게 하고있다. 운전군, 동림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말은 과제를 그날로 질량적으로 수행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분조, 작업반, 농장이 앞구작물수확과 뒤구작물수확을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예새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앞구농사를 앞설것에 해는 종산군, 평성시, 안주시 등 평안남도 여러 시,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귀중한 곡식을 조금이라도 허실할까봐 간진 일출세로 수확을 다그치고있다.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그러나 교생도 많고 피와 땀, 눈물도 있었지만 남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아름다웠고 그것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안아왔던 천리마시대의 승결과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살아 높여주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을 보며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의 빛나는 위훈을 다시금 새겨안고있으며 전세계대들이 지녔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전진군에 힘찬 발걸음을 내걸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본사기자 김준경



김정숙 평양시공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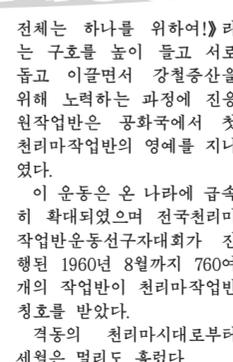
수필 **민민의 향기** 사람들은 흔히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꽃에 비유 말하곤 한다. 꽃다운 얼굴, 꽃같은 마음씨, 꽃다운 생... 온갖 꽃이 다되어 만발한 이 계절에 나는 취재길에 올랐다. 방금 한 아름다운 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누릴 길 없어서였다. 이름은 박신명, 어느 한 병원의 안과 의사로 일하는 그는 두눈이 실명당할 위험이 있는 한 학생에게 자기의 구결막을 사들여 주어 그가 광명을 되찾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나와 마주앉은 신명사는 너무도 젊고 아름다운 녀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씨가 더 아름다와 나는 서둘러 그 동기에 대하여 물었다. 허나 뜻밖에도 그는 혼연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었다. 《현 의사로서 응답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소개하려면 제가 아니라 저의 아바트에 살고있는 녀인을 취재하십시오.》 그는 부모없는 아이를 7명이나 맡아 키우고있었다. 부모없는 그애들이 작은 서러움이라도 느낄까봐 자기가 낳은 애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말았다. 신명사의 집안은 거절과 간곡한 부탁에 떠밀려 나가는 그 녀인에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취재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정 소개하시려면 우리 직장장동지를 소개 해주십시오. 그는 열음구멍에 빠진 아이를 구원하고도 그 소행에 대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희녀성의 남편은 몇몇은 웃음을 띠우고 나를 떠밀었다. 허나 그 직장장도 자기가 한 일

은 평범한 일이라고 하며 나를 다 큰 미담의 주인공에게로 떠미는 것이었다. 평범한 일... 정말 그랬다. 화창한 이 계절에 이 땅에 만발한 것은 아름다운 꽃들만이 아닌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 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이 예사롭고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릴 가나 들을수 있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었고 어디서나 풍겨오는 미덕의 진한 향기였다. 나는 머리를 들어 주위를 둘러 보았다. 여기에도 꽃송이, 저기에도 꽃송이. 공화국은 어릴 가나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있는 미덕의 대화원이다. 리경철

작가들에 의해 창조된 예술적허나 형상이 아니었다. 영화는 전후에 강선제강소(당시)에서 있었던 실제한 사실에 기초하고있다. 전후북부건설시기 강선제강소에는 전쟁의 와중속에 복잡다단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영화는 광석이나 녹슨 파철이라도 일단 로에 들어가면 하나의 붉은 쇠물이 되듯이 복잡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만아들로 키워내세우신 로동계급의 품속에 들어오면 그들과 한식술로 된다는 운명의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성하였다. 영화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뜨거운 인간사랑과 혈육의 정을 부여주는 고귀한 헌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철한 자기희생정신을 체철화한 강태관직장장과 강옥 등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성하였기때문이다. 영화의 주인공들중의 한사

람인 진용산작업반장의 원형은 실제인물인 진용원영웅이다. 주체45(1956)년 12월 강선제강소를 찾았으며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할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진용원과 그의 작업반원들은 5개년계획(1957-1961)수행의 첫 출강부터 용해시간을 이전보다 3시간이상 단축하였다. 1959년 2월 제강소에 또다시 오시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씨를 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에 고무된 그들은 그해 3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분화를 들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건반으로 양양게하는 대중교양운동, 생산을 양양으로 이끄는 대중적혁신운동이었다. 진용원과 작업반원들은 본위주의를 비롯한 뒤떨어진 사상관점, 일본색을 극복하고 집단적혁신으로 생산을 다그쳐 제강소가 5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의 한 장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의 한 장면

자체의 원료자원에 의거하여

평양곡산공장을 찾아서

《우리 나라에 흔한 강병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니 원자재걱정이 없고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질풍같은 제품들이 팡팡 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 이것에 일하기도 즐겁습니다.》 얼마전 취재차로 평양곡산공장을 찾았을 때 우리의 만난 리성철기사가 하는 말이다.

자신감과 긍지가 넘친 그의 어조에서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공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제배하고있는 강병이를 원료로 하여 당문제를 해결하고있다. 리성철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강병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불구기와 갈기공정을 거친 강병이는 농마와 껌질, 눈, 단백으로 분리된다고 한다. 농마는 액화, 당화, 려과,

농축공정을 거쳐 물엿으로 되고 물엿생산과정에 나오는 당화물로는 옥당도 만들고있다. 그 옥당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잘 만들었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주체당이라고 한다. 자동회송선을 타고 흘러가는 빈 용기속에 옥당이 가득 채워지며 줄지어 나오는 생산공정의 모습은 볼수록 마음을 호뭇하게 했다. 공장에 있는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되어있었다. 옥당직장의 유명호직장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당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공장에서는 국내의 무진장한 원료를 가지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자

체의 힘으로 첨단을 개척하던 감동깊은 이야기도 들었고 기대마디에 이어진 로동자, 기술자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다. 알고보니 강병이가공과정에 여러가지 부산물도 나오는데 공장에서는 이것으로 식용기름과 집집승머기도 생산하여 그 덕을 토틈히 보고있었다. 돌아볼수록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는 공장종업원들의 사업기공과 일본색에 감란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체의 원료로 주체화, 국산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가고있는 이곳 공장의 모습은 자력자강이 제일임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었다. 리성철기사는 말하였다. 《자력갱생이 제일입니다. 래년 이맘쯤에 다시 와보십시오. 그때 가면 더 몰라보게 달라질것입니다.》

본사기자 김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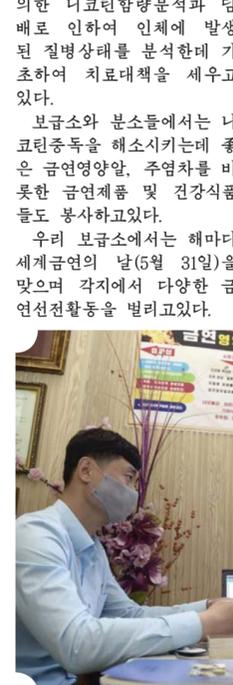
4월 세계보건기구 담배통제기틀협약이 가입하였다. 2007년 7월에 금연제품시장으로 발족된 우리 금연연구보급소는 오늘 각 도에 10여개의 분소들을 두고 전국적범위에서 금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기자: 현재 금연연구보급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는가? 리희경: 우리 보급소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금연연구사업과 선전보급,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최근에만도 우리 보급소에서는 흡연유혹을 없애고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연구자료들을 내놓았으며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의 질과 가치수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급소에서는 사람들이 금연법과 그 시행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각종 건강위험정보그림과 그와 같은 내용의 알림문 등을 제작하여 흡연장소들, 담배판매장소들에 게시하고 사람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고있다. 흡연금지장소와 단위들에 금연마크를 붙이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사업을 진

행하고있다. 그리고 국가망에 전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금연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며 전국적인 먼거리금연봉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금연희망자들과의 상담에서는 생물량자공진분석기에 의한 니코틴함량분석과 담배로 인하여 인체에 발생된 질병상태를 분석한대기 초하여 치료대책을 세우고있다. 보급소와 분소들에서는 니코틴중독을 해소시키는데 좋은 금연영양양, 주염차를 비롯한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들도 봉사하고있다. 우리 보급소에서는 해마다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으며 각지에서 다양한 금연선전활동을 벌리고있다.

기자: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금연활동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 리희경: 인민들의 건강중심적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금연활동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적극 내밀고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담배통제법이 채택되었고 지난해에는 금연법이 채택됨으로써 금연운동과 흡연을 통제할수 있는 국가의 공고한 질서와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금연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는 국가의 시책을 더 잘 받들어나갈 것입니다.

2020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이 채택된 후 금연연구보급소에서는 금연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기자는 리희경 금연연구보급소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금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이곳을 찾는 금연희망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리희경: 그렇다. 특히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이 채택되고 우리 보급소의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연을 희망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자: 금연연구보급소는 언제 생겨났는가? 리희경: 우리 나라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국적인 후과를 산생시키는 담배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본사기자 김진혁



본사기자 김진혁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8)

가지마다 노란 열매 주렁진 살구나무들



얼마전 평양의 개선문에서 천리마동상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준비하게 늘어선 살구 나무풍경에 취해 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푸른 잎 설레는 살구나무 사이로 눈부신 해살이 빠르게 비쳐들고 새들도 가지에 살췌이 내려앉아 고운 소리로 지저귀는데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살구열매들이 아지가 부러지도록 주렁주렁 달린 모양이 볼수록 멋이 있었다.

얼마나 마음호뭉한 자연풍경인가.

봄이면 꽃들이 만발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여름이면 무르익은 노란 열매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가을이면 단풍든 잎새들이 거리의 풍치를 더해주는 살구 나무들.

아지마다 주렁진 살구열매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의 한 일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살구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니 아이들이 열매를 따먹어서 걱정이라고 말씀올리는 일꾼에게 그애들이 누누네 아이들인가고, 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시며 그애들에게 먹이자고 전정을 하면서도 과수원을 일구었고 북경회의도 한것인데 가로수에 열매가 달려 아이들이 먹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 여기 뿐인가고, 사회주의농촌마을 그 어디에나 살구동네는 또

얼마나 맑은가고, 어디서나 살구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덕을 보고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길을 오가던 사람들도 가지가 부러지도록 주렁주렁 달린 살구열매들을 바라보며 《열매맺은 시기가 빠른 살구나무는 가꾸기도 쉽고 풍치를 돋구는데서도 매우 좋은 과일나무로 알려져있다.》, 《살구는 건강에 아주 좋는데 살구열매와 살구나무도 만들어 먹고 김치를 담글 때 살구를 넣으면 새콤

효능높은 고려인삼미안막

공화국의 통인기술교류사에서 개발생산하고있는 고려인삼미안막이 미용효과가 뛰어난것으로 하여 여성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 미안막은 인삼에 들어있는 활성물질에 의하여 특색소의 항원성을 억제하고 피부부를 맑고 광택있게 해주어 피부의 탄성을 강화시키고 새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피부보호용미용제품이다.

고려인삼미안막의 주요성분

인삼추출물에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 비타민B군, 다당류성분이 함유되어있어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에 영양을 주어 수분과 기름분의 평형을 보장하고 피부의 수분증발 및 경화, 주름을 방지한다.

사용방법을 보면 먼저 세면후 미안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장수로 세척한 다음 미안막을 꺼내어 눈과 입

의 위치를 잘 맞추고 얼굴에 밀착되도록 골고루 붙인다. 15~20분후 미안막을 떼면 다음 피부에 남아있는 액을 깨끗한 물로 씻기나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킨다.

이 제품은 내용물이 미안막용유가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충분히 배여있어 영양성분들이 피부의 깊은 층까지 흡수되게 한다.

또한 뛰어난 밀착력과 신축성으로 하여 곡선이 많은 얼굴의 모든 부위에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사용에 편리하다.

많은 여성들이 미안막을 사용한 첫날부터 얼굴피부가 매끈해지고 색소침착이 연해졌으며 미백효과도 아주 좋다고 한다.

고려인삼미안막은 여러 봉사망들에서 널리 판매되고있는데 그 인기가 대단하다.

본사기자



7월의 절기와 민속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서때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김매기 등을 따라세웠다.

대서를 전후하여서는 주로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적특성에 맞게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으로 삼복철음식들을 들수 있다.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중에 제일 무더운 삼복중에서 초복과 중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삼복기간은 초복과 중복사이, 중복과 말복사이 10일이다. 올해와 같

이 중복과 말복사이 20일 되는 해도 있는데 이러한 해의 삼복을 월복이라고 한다.

삼복철의 음식으로는 단고기장, 경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뜨려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에 조밥을 단고기장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푼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겨왔다.

더위로 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질 때 식욕을 돋우고 영양을 보충하며 온갖 병을 예방한다는 삼복철의 단고기장은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려왔다.

이러한 단고기장뿐 아니라 초계탕과 팔죽 등도 삼복철 건강에 매우 좋은 전통적인 보양음식이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 대서는 7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세계적인 력기강자 엄윤철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며 인간의 육체적한계를 편속 돌파하여 높은 기록을 세운 엄윤철은 력기강에서 판독되고 명성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다.

아름답게 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그는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후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시킴에 눈부신 성과를 안아왔다.

그는 2012년 7월 영국에서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우승후보자로 지목되던 2세대계선수권보유자를 물리치고 추격올림픽에서 올림픽

새기록을 세웠다.

또한 2013년 뿔스카에서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하여 순간체기와 빠른 추기, 제치있는 력결동작들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추격올림픽종목에서 162kg을 성공시켜 제1위를 하였다.

2013년 1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 140명이 참가한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독특한 경기전법과 높은 기술로 끌어올리기와 추격올림픽에서 제1위를 하고 종합 1등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2014년에 이어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엄윤철선수는 남자 56kg급경기

서 평시에 련마하여온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171kg을 끌어올림으로써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세웠으며 끌어올리기에서도 131kg을 끌어올려 종합 302kg으로 제1위를 하였다.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남자 55kg급경기 추격올림픽에서 166kg을 성공시킨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28kg을 끌어올려 종합 294kg으로 세계기록을 돌파하고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인 엄윤철은 세계적인 력기강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본사기자

민요해설 《물레타령》

민요 《물레타령》은 대표적인 로동민요의 하나로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가사는 복건의 질곡속에 깊은 밤 홀로 앉아 물레를 돌리면서 부모들의 강요에 의하여 마음에 없는 사람과 결혼하여야만 했던 심리적고충과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한 항거의 정신, 앞날에 대한 희망을

렐과 같은것을 가지고 실을 뽑는 기구로서 물레질은 조선여성들의 주되는 로동생활분야였다.

가사는 복건의 질곡속에 깊은 밤 홀로 앉아 물레를 돌리면서 부모들의 강요에 의하여 마음에 없는 사람과 결혼하여야만 했던 심리적고충과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한 항거의 정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고 꾸준히 일해가는 우리 여성들의 근면한 성품과 감정정서를 잘 반영하고있다.

12/8박자에 기초하여 흐르는 민요의 선율진행은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속에 맺힌 구슬픈 심정을 하소연하는듯 한 예절하고 처량한 정서로 일관되어있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나의 선택 (2)

글 우향미, 그림 김윤일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나는 더이상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됐어, 명희야. 진정해라.》 무엇보다도 그를 위안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도간도간 새어나오는 《남편이란 사람이야.》, 《잘못된 선택.》, 《실망한 인생》 등의 말을 가려들으며 그의 가정생활에서 가려지 않은 그 어떤 일이 생겼다는것을 육감적으로 느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끝내자마자 외출복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의문이 가득 실려 지켜보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아.》

나는 앞뒤사연을 알리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그 녀인때문에 나간다는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나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당부대로 침묵을 지켰다. 허나 그렸듯이 그 당부를 먼저 깨뜨린것

은 어머니였다.

저녁식사를 물린 뒤 어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차조지중 이야기했다. 이럴 때는 의례히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방을 나섰지만 안에서 도란도란 울려나오는 말소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무 역기관에서 사업하고있는 리명희의 남편이 말은 일을 잘 하지 못하여 나라에 큰 손실을 주었다는것이였다. 뒤늦게야 파오의 엄중성을 깨달은 그의 남편은 나라에 준 손실을 씻기 위해 스스로가 로동현장에 나갈것을 결심하였다 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사연을 다 듣고 나서 묵묵히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동안 방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문득 아버지가 어머니더러 자기와 처음 만난던 때가 생각나느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씩스스럽게 웃으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아름답던 사랑의 나날들을 더듬는 듯 했다.

나는 전실에게 응송그리고있던 아버지를 강구고 이베껏 들여보지 못한 이야기에 가

슴을 들먹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대학시절에 동창생이었던 리명희는 아버지와 한 아빤에서 살았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오작교역에 그가 직접했었던것 같다.

아버지는 지금도 수수하고 눈에 별로 띄우지 않는 남자였다. 그때 대학시절에는 단정한 학생복차림에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에 전심하는 그런 청년이였다.

처녀가 청년의 모습에 시선이 끌린것은 청년의 출근시간이 항상 고정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언제 봐야 똑같은 시간에 보게 되는 똑같은 모습이였다. 한번도 자세를 흐트러거나 탈선함이 없이 항상 사색에 잠겨있는 청년의 리지적이고 소박한 모습에서 처녀는 고지식하고 진실한 마음을 느꼈다. 이러한 처녀의 호감은 청년을 잘 알고있는 명희의 부재질로 더욱 커졌다.

네가 사람을 잘 봤다

영준동문 대학적으로 소문난 수재야. 또 품성은 얼마나 단정하더냐.

그때까지만도 관심에 불과했던 청년에 대한 생각은 전국대학생문답시경연에서 1등한 청년을 축하해서 꽃다발을 안겨주며 부끄러움으로 불이 뻥장게 물들 때 때룩한 사람으로 옹터났다.

처녀는 변함없는 그의 한모



습을 보며 그의 인생길도 언제나 곧바로고 진실할것이라고 믿었다.

청년은 처녀와 만난 자리에서 무척 좋아하는 소설책 한편을 주었었다.

그들의 사랑이 점차 익어가지 뜻밖에도 오작교로 나섰던 명희가 처녀에게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대상자선택인데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것

이었다. 처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리명희는 그의 어머니를 찾아와 설복해나섰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그런 사람에게 보내야겠어요? 우선이야 인물도 굵지 도...》

《인간 영준이란 청년이 똑똑하구 훌륭하다고 소개할때 언젠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졌나. 시집을 잘 간다는게 뭐였나. 좋은 사람을 만

나도 우리 경강도 한다하는 천리마수였지. 우리가 재산이요, 직업이요, 인물이요 하는걸 보았는줄 아나? 그저 나라일에 극성인 사람이면 가정도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고 믿었지.

난 지금도 이 기준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가 후회없이 걸어온 인생길이 그때로 너희들, 새 세대들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리명희는 외할머니의 이말에 끔찍도 못하고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있는 아버지와 동진로소의사로 배치받아 일하고있는 어머니의 결혼식은 부모님들의 축복속에 진행되였다.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생의가 갖든 소박한 기념품을 안겨주었다. 그때 아버지의 동무들이 가져온 기념품은 아직도 우리 집에 가보처럼 간직되어있다.

정교한 액물속에 붉은색으로 수를 놓은 《오직 한마음》이라는 기념품이다. 아버지의 동무들은 이 기념품을 주면서 《이게 사연이 깊은 겁니다. 원고하니 이 친구의 별명이지요. 이 글처럼 변함이 없으리니 믿으십시오. 우리 신랑신부가 이제 어떤 노릇을 부를지 벌써 알고있습디다. 《오직 한마음》, 이 노래를 부를겁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나도 우리 경강도 한다하는 천리마수였지. 우리가 재산이요, 직업이요, 인물이요 하는걸 보았는줄 아나? 그저 나라일에 극성인 사람이면 가정도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고 믿었지.

난 지금도 이 기준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가 후회없이 걸어온 인생길이 그때로 너희들, 새 세대들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리명희는 외할머니의 이말에 끔찍도 못하고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있는 아버지와 동진로소의사로 배치받아 일하고있는 어머니의 결혼식은 부모님들의 축복속에 진행되였다.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생의가 갖든 소박한 기념품을 안겨주었다. 그때 아버지의 동무들이 가져온 기념품은 아직도 우리 집에 가보처럼 간직되어있다.

정교한 액물속에 붉은색으로 수를 놓은 《오직 한마음》이라는 기념품이다. 아버지의 동무들은 이 기념품을 주면서 《이게 사연이 깊은 겁니다. 원고하니 이 친구의 별명이지요. 이 글처럼 변함이 없으리니 믿으십시오. 우리 신랑신부가 이제 어떤 노릇을 부를지 벌써 알고있습디다. 《오직 한마음》, 이 노래를 부를겁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여름철에 먹는 초계탕

초계탕은 영양가가 매우 높고 맛이 특이한 여름철 음식으로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닭가슴살 200g, 닭가슴살 500g, 닭알 1알, 오이 100g, 참나물버섯 50g, 깨소금 5g, 간장 10g, 참기름 5g, 식초 10g, 겨자 10g, 파 20g, 마늘 5g, 김실고추 5g, 잣 5g, 실고추 0.5g, 국물 300g을 준비한다.

닭가슴살은 삶아 가늘게 썰고 참나물버섯은 데친 다음 가늘게 썰어서 볶아 식힌다. 오이는 작은 버들잎모양으로 얇게 썰어 무친다.

국물을 깨소금, 간장, 식초, 겨자를 가지고 양념한다. 닭가슴살을 가늘게 썰어 깨소금, 참기름으로 양념하여 그릇에 담고 그우에 참나물버섯볶음, 오이무침, 닭고기를 얹은 다음 실타알, 실과, 실고추, 김, 잣으로 고명하고 양념한 국물을 부어 낸다.

본사기자

1분동안에 건강상태를 알아보려면

가정에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1분동안에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방울을 보면 혀결면의 침을 손가락에 묻힌 다음 투명한 봉지에 손가락을 넣고 햇빛 또는 전등아래 놓아둔다. 그리고 1분이 지난 후 손가락을 검사해본다.

손가락에 얼룩이 없고 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내장에 다른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수 있다.

매우 역한 냄새가 나면 페

또는 위관질환이 있을수 있고 달콤한 냄새가 나면 당뇨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머니나남자가 나면 콩팥관질환이 있을수 있다.

얼룩이 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자주색의 얼룩이 생기면 기관지염과 혈액순환장애가 생겼을수 있다.

흰색의 얼룩이 생기면 호흡기감염증이 있을수 있으며 간색의 얼룩은 콩팥질환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보석도 닭야야 빛이 난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닭야야만 그 빛이 나타나듯이 사람은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야 사람다운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비유 이르는 말.

◆ 남의 지식 흥보지 말고 내 지식 가르쳐라.